

다윗과 므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7/25 월

삼하 9:3, 7-9, 11

3 왕이 물었다.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8 므비보셋이 경의를 표하며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9 왕이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네.

11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 종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므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네.”

엘 2:4-7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시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엘 3:8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7/26 화

롬 2:4

4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고후 6:4, 6

4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

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삼하 9:4-6

4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5 다윗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6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표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므비보셋이여.”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롬 3:11

11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

겔 34:11, 15-16a

11 주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나 곧 바로 내가 직접 내 양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찾아다니겠다.

15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목양하고 그들을 높게 하겠다.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16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흩어진 양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양을 싸매 주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하겠으나, 살찌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나는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겠다).

벤전 2:25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7/27 수

삼상 20:14-15

14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와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네.

15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실 때에도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 주게.”

골 3:12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눅 15:20-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걸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시 103:8-13

8 여호와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풍성한 분.

9 항상 책망하지는 않으시며 영원히 진노를 품지도 않으신다.

10 우리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11 하늘이 땅 위로 높이 있는 것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자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12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13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와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7/28 목

삼하 9:13

13 므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롬 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딤편 1:13-15**

13 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느 8:10**

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뉘를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7/29 금**

**딤편 3:4-5**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일 4:9-10**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롬 9:15-16, 18, 23**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7/30 토**

**엡 2:7-8**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4:32**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 3:1-4, 12-15**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7/31 주일**

**빌 2:1-11**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2022. 7. 25 ~ 2022. 7. 29**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4-5 장

찬송  
26